

자료 30. 재학생이 총장께 드리는 편지

재학생이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어찌보면 2006년 9월 입학 이후 햇수로 6년, 만으로 5년을 다닌 정든 학교를 등질 각오로 가천 이길여 총장님께 공개 편지를 올려봅니다. 직접 만나뵙고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지만, 제게 그런 자격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부디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김용균, 본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1985년 생으로, 올해로 딱 27입니다. 저와 함께 입학했던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 정말 날라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언제까지나 대학생으로 살 것 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전 제 삶에서 자유를 처음으로 안겨 준, 이 경원대학교라는 공간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물론 좋은 추억만이 제 기억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의 날개를 달아 준 이 대학이 제 마음에 있어 유일한 고향이자,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교가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입학 후 한 두해동안 학교 밖에서 저는 "어느 대학 다니냐?" 라는 질문에,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 다닙니다."라는 말을 쉬이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도 않는 지방 잡대의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는다는게, 제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수까지 각오한 제 마음을 붙잡은 건, 어찌보면 직, 간접적으로 총장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장님이 주도한 비전과 희망은 저로 하여금, 끝없는 도전정신과 애교심을 가지게 하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친조부님, 김영선(金永先)님께서 보증한 분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친조부님이신 김영선님께서서는 전 육군 예비역 중장, 전 국방위원장이셨으며, 총장님과의 인연을 양평, 남양주 국회의원시절인 1981~82년 경에 양평병원(현 양평 길병원)인수 문제를 두고 가지셨다고 하고, 당시 총장님을 일컬어 정말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라

면, 이 곳을 정말 '밝은 동산'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경원...밝을 경 자에 동산 원 자를 쓰며, 학교 창립자이신 김동석 초대 이사장님의 두 자녀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사실 이 경원이란 이름의 연원은 이 학교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름이 없어져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10만에 가까운 동문 선배님들과 일만오천의 재학생들에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 귀와 입에 닿도록 불리고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06학번 김용균,

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구팀 BT 보이즈 감독 김용균,

경원대학교 중앙동아리 KW(경원)-SIFE 전 멤버 김용균,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상법소학회 '로메니아' 전 회장 김용균.

제가 소속된 단과 대학 이름은 재학 중에 세 번이나 바뀌었고 머물던 건물 역시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맨 앞에 붙은 경원대학이라는 이름은 지난 6년간 제 이름 맨 앞에 찰싹 붙어서 이제는 저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제게 있어 항상 끝없는 애교심의 원천이자 제 20대 전반의 젊은 기상, 진취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압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경원이라는 이름이 꼭 지켜져야 할 명

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어요. 곧 한 식구가 될 가천의대 학생들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이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저 하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고 총장님 이하 학교 관계자 분들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윤원중 기획처장님께서는 지난 간담회 때,

"가천의대와의 통합은 4년 전 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되는 학교의 교명에 대해서, 정작 바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당사자인 본교 학생들에게 단 1분이라도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시간을 약 2~3주 정도 주셨지만, 그 때는 이미 학교 당국에서 이미 '가천'이라는 이름을 확정된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 2~3주의 시간은 학교에 있어서 그 저 설득의 시간이었을 뿐이었죠. 공식적으로 한창 시험기간인 4월 18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생대표 4명과 학교측 인사 28명이 투표를 하여, 26표의 압도적인 숫자로 가천대학교 이름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 것 뿐인가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도 사실상 북한주민투표를 연상케하는 교명변경동의서를 배포하여 실명 서명으로 그 중의(衆意)를 모았으니, 이 곳이 진정 상아탑인지 독재국가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작년 쯤 인가요?

이길여 총장님께서는 직접 언론 기사에서 이에 대해,

"통합대학의 학교명은 제3자적이고 글로벌할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가천'이라는 이름은 기존의 가천의대에서 따온 이름이고 경원대학교 학생의 입장에서는 통합 상대방의 이름인데다 글로벌한 신식 이름이 아닌 총장님 본인의 호(號)를 따온데에 불과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천이라는 이름은 우리 본교 내에 수두룩 합니다.

가천 컨벤션센터, 가천 바이오나노 센터, 가천 웨딩홀...

이러한 총장님의 삶의 족적 없이도 총장님의 권위와 명성은 이 학교 곳곳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옛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제 산수(傘壽)의 문턱을 바라보고 계시는 총장님이시라면 이러한 옛 성현의 지혜를 간과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참으로 외람되게도,

총장님께는 매우 송구한 말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총장님께서 넘침의 과오를 이미 범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거로,

총장님께서 얼마전에 공개석상에서,

"병원장이 병원명을 바꾼다고 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또 윤원중 기획처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총장님의 지난 10년간의 재직 중 업적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혹은 격려 차원에서 교명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고, 총장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것이 정녕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되지 않기에, 이러한 총장님과 학교 당국의 주장에 대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총장님과 학교 당국의 뜻은 옳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경원이나 아니냐하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재학 중인 일만 오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 당국의 오만함과 의견 수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만함은 비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사고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할 것이구요.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학교 당국 측의 오만한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다'를 단호히 주장하는 까닭은,

첫째,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단 하루도 존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영리한 학교 관계자분이 수백, 수천분이 계셔도, 정작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총장님 병원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적어도 갑과 을의 관계는 될순 있을지 몰라도 주와 종의 관계는 아닌 것이지요.

둘째, 학생의 등록금은 학교 예산의 주 수입원입니다. 사학재단은 국법 상 비영리 법인이기에, 본질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는 일년 예산을 세울 수 없겠지요.

더더구나 지난 오류년간 회계 상 학교로의 재단전입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지난 비전타워 설립을 비롯한 학교당국의 공공시책의 자금원은 거의 100퍼센트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세간에는 총장님 한 분의 출자로 인한 성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등록금만으로도 한 해에 200억 가까운 흑자를 내는 건실한 재정을 가진 학교지만 아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소위 홍보의 힘이지요.

학교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의 혜택은 원칙 상 그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어떤가요? 무려 70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난 몇 년간 비축해두면서 전국 순위권(17위, 가천의대는 16위)에 안에 들어가는 비싼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올해는 2.85퍼센트 인상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부정축재로 인하여 엉뚱한 데 증발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는 감사하지만, 적어도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700억이란 돈으로 로스쿨을 유치하고 지성관을 짓고 송도에 약대를 짓는 등등 대대적인 개발을 공언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대국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매혹적인 수사들의 열거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 계획설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여부 검토는 물론이고, 단 한 명의 학생의 의견수렴의 의지가 있었으며, 이를 재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부수고 갈아 엮는 모습만 보다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년간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요즘 험난한 취업난 만큼이나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은 과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입니다만, 이러한 친구들에게 적절한 장학 혜택이 왔는지에 대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700억이라는 돈이 이런 친구들 몇 명 도울 수 있었을까요? 500만원 전액장학금 기준으로 따져보아도 무려 만 4천명의 학우들이 500만원이란 돈을 한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4천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돈은 이제 그 학생들과 전혀 상관없는 미래의 후배들...그 것도 다른 교명을 가진 후배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 것이 진정 모두를 위한 길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학교 당국의 중요 정책의 성패 여부와 상관 없이, 그 결과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중요 정책의 실패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피해는 잘못하면 학생 개인에 있어서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과를 들 수 있겠네요. 폐과 한 방에 30년 쌓인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혹은 경험해보셨다면, 돈 안 되는 몇몇 과를 없애고 대신에 심리학과나 연기과 같은 세태영합적인 학과를 만들 생각을 하시진 못하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혜자 혹은 피해자 입장이 될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는 현 학교 당국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 분들 계획대로 성공을 거두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면요? 그 분들 한 둘이 옷 벗는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도, 당연한 듯이 학생과 학생 대표를 배제하는 학교당국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요? 정작 그 분들은 자신들의 월급이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건지요.

이러한 독재, 관료주의적인 학교당국의 운영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지 심히 염려 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학과 내에 소학회 하나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리더십은 실패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후배들이 나타나 학회를 정상화시켰기에 다행입니다만,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불현듯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저는 제 실패의 원인이 저의 '독고다이'식 권

위주의적 운영과 5살 이상 차이나는 후배학우들의 필요와 바램,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5년이란 세월의 간극, 세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한 리더쉽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작년 한해였습니다.

5년이란 세월의 무게도 이러할 진데, 대학을 졸업한지 20~30년 이상의 학교 당국 관계자들이 이러한 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성공을 자부할만한 상황인가요? 정말로 전국 40위권인 우리 학교가 이러한 묻지마 개혁으로 통합 5년 만에 10대 사학에 입성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학생규모만 놓고 따진다면 전국 10위권이지만 학교의 질적 성장은 그에 비례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국 3위가 된다면서요? 규모는 3위, 질은 30~40위...아무래도 양과 질의 균형이 너무 맞질 않습니다. 윤원중 기획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논하셨지만, 재벌식 확장에 대한 리스크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합 후의 수 많은 학교의 발전 계획은 본교의 기존학과들을 살리는 쪽이 아닌 인천 송도에 약대 신설 및 의료계열로 치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년 재단전입금 150억 정도가 필요한 가천의대의 적자가 한 동안 우리 본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꿔지겠지요. 총장님께서 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예의 엄청난 외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본교에 대한 재단전입금이 0 원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말일까요? 설령 그 돈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본교의 비의료 계열 학생들이 얼마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 몇 개 지었다고 명문 십대사학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들도 이미 그리 했겠지요. 질보다 양, 내실보다는 외관이 우선시 되는 재벌식 확장정책은 아무래도 공허한 부도수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러한 급진적 개혁드라이브가 10년을 넘어서 20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다가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남아 있는 장소가 하나 없을 듯 하구요. 이번 통합을 제2의 창학이라고 주장하시니, 옛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싶어하고 싶을지도 모르시겠지만, 한 몇 십년 뒤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듯 총장님의 노력을 제3의 창학이라 하여, 명문 세계 십대사학이라 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박살을 낸다면, 총장님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옥스-브리지 같은 외국의 명문대들을 보면 수백년 된 학교 건물들이 수도룩하지만, 이제 곧 부숴질 기술관은 고작 반백년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태는 마치 김태희, 한가인이 되고 싶어 미친듯이 성형을 하고 급기

야 스스로의 이름까지 바뀌버린 한 성형미인의 완전한 페이스오프와 곧 무너져 내릴 위태로운 자태를 보는 듯 합니다.

넷째,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며, 사회에서 학교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의 인지도와 가치는 갈 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만약 학교가 가게이고 학생이 고객이라 생각하신다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먼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총장님께서도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많은 애교심과 자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총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철마다 붙어있는 학교 홍보 간판보다는 하나의 힘 있는 동문의 존재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총장님께서도 이미 모교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총장님과 몇몇 학교 관계자분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학교 동문들이 경원이란 이름으로 쌓았던 조출하지만 숭고한 노력들이 한 순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이 비록 서울대보다는 못할 지는 몰라도, 경원대 음대, 한의대와 같은 과들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총장님. 총장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가 내일 '하버드 서울 캠퍼스'로 바뀌게 된다면, 총장님께서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이름을 얻었다고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서야,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학교가 학생이 주인이라는 제 주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바뀌는 교명도 두렵지만, 지난 몇 년간 학교의 독단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병폐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 비록 우수한 학생도 학생의 대표도 아니었지만, 지난 6년간 학교 내외를 중형으로 누비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학과, 동문회, 총학생회, 학교당국, 동아리...학교의 기관이란 기관에 제 발자취를 아니 남긴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 번 일에 관련되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여야 했기 때문에, 지난 한 두달을 열심히 발품을 팔아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 무척이나 고심했습니다. 이와중에, 제게 교내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법과대학 서완석 학장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과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앞으로 무한히 펼쳐질 경원대학교의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이 학교의 누구라도 나서서 이러한 뜻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은 용기나마 끌어내어 부족한 솜씨로 끄적이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이번 행위는 지난 세월 학교 발전이란 명목 하에 당국에 철저히 무시당했던 교내 운동권 학우에 대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은 탄압에 대해, 그리고 학교 당국에 의해 소속 대학(전문대)을 잃고 과를 잃고 그 대업(大業)을 위해 희생당하여만 했던 소수과의 학우들에 대해, 높은 등록금에도 투쟁하던 학우들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했던 제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 어찌보면 미리 제동을 걸었어야 할 학교 당국의 오만함과 폭주에 대한 제 분노의 일갈이 이제서야 입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갑자기 반 나찌 운동을 하시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이왕 말 꺼낸 김에 한 번 인용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왔다. 처음에는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다음엔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를 숙청했다. 나는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유대인을 잡아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다음엔 그 들이 나에게 왔다. 그 때는 이미 나를 위해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마치 이 이야기가 제게 이미 닥쳐온 현실과 같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망상일까요? 과연, 현 학교 당국은 과연 명문사학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상아탑의 운영진입니까? 아니면 나찌와 같은 집단입니까? 내부에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고 나온 한들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아탑이 명문사학이 될까요? 좋은 취업알선교육소가 될까요? 전 작금의 현실이 소름끼치도록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총장님께 이렇듯 편지를 쓰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불과 작년까지

지만해도 저는 총장님을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라고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학교에 대한 열정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란 걸 잘 알기에, 그러한 총장님 가호 아래 희망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그 지난 시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애교심을 품는데 어려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급진적이고 규모 있는 변화는 결코 학교를 질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식있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져야 이 곳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러한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엄마 품과 같은 학교 당국의 따뜻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자는 있었지만 후자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농구팀이야 학과 상설 대표팀이었으나 사조직 취급 받았으니, 땀 한 톨 못 받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SIFE 동아리 시절이나, 과학학회 간부 시절이나, 소학회 회장 시절에 단 한 톨이라도 얻기 위해서 미친 놈처럼 학교 곳곳을 누벼야했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저는 지난 5년간 천만원 단위가 훌쩍넘는 제 사재를 털어 후배들과 팀원들의 회식비와 장비값을 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빈약한 지원에 불구하고, 법학과 농구팀은 2008년 가을에 4년만에 교내 대회 첫 승을 거둘 수 있었고, SIFE 시절 제가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Golden Key'팀은 학교 측과 (주)신한지주 측과의 MOU 체결 및 2008년 9월 20일의 대규모 교내 취업강의의 주축이 되었고, 제 손으로 쓰고 직접 연출한 과내 학술제 대본 '17년 후'는 2009년 11월 27일 새롭관 멀티미디어실에 올려퍼졌으며, 2010년 3월에는 법학과에 법철학연구회가 사라진 이후 첫 소학회인 상법소학회 'Law-Mania'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학생은 누군가의 후배가 될 수 있었고, 동기가 될 수 있었고, 선배가 될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연인이 될 수 있었고, 연극배우가 될 수 있었고, 농구 선수, 감독이 될 수 있었고, 프로젝트 팀장이 될 수 있었고, 조직 운영자가 될 수 있었고, 대본 작가와 연출가가 될 수 있었고, 학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학교가 '내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집'이었기에 내 집을 바꾸고 싶었고,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번듯한 자격증 하나, 학점 하나, 장학금 한 톨 챙기지 못하고 졸업할 예정이지만,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는 한 톨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곳을 통하여 비로소 제 스스로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온통 취업난이라, 가혹한 생존경쟁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업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이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삶을 넓게 볼 수 있는 보다 많은 자유와 기회가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와 기회는 바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저를 믿고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 학교에 있는 모든 학우들이 저와 같은 축복 받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 중에서는 가진 재능이 저보다 수 십, 수 백배 나은 학우들이 있어도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 쫓기듯 생업을 위해 사회로 끌려가야 합니다.

700억원이라는 비축금과, 총장님이 곧 출자하실 천 억원, 매년 200억 상당의 흑자는 이러한 학우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더욱 학교 당국의 학생 지원이 다각화, 규모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의견과 학교 당국의 긴긴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어느 집단이던간에,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혁명은 유사 이래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스스로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평화로운 혁명에는 항상 결실이 따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기에, 서구열강의 침탈을 극복하고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먼 나라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신화를 써나갔습니다.

재밌게도 이 두 나라 모두 얼마나 남지 않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외의 대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의 절대 권력은 사라졌지만, 대신 자랑스러운 존재로 국가 구성원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죠.

IMF 이후, 혼란스러운 이 학교를 인수하여, 재단 비리로부터 이 학교를 구원하시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에,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기틀을 세우신 총장님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이 학교 구성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뿐 더러,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총장님의 이름은 이 학교가 존재하는 동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을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총장님 한 분의 힘보다는, 이 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후학들과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정작 현실에서 보기 힘든 굳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저는 경원대학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G2+N3 같은 구호보다는 인재를 낳게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화는 총장님 같이 사랑이 많은 분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업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 당국은 재학생을 믿고, 그렇기에 재학생들의 대표를 믿고, 졸업한 동문들을 믿고, 이에 동문과 재학생은 학교 당국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이름 아래 하나로 구축이 되어 가는 학교. 전국의 수백개 대학 중에서 우리 학교만이 시도 할 수 있는 특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수평적 소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카카오톡 한 번 해보신다면 제대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교훈처럼, 비록 우공은 죽을 때까지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지 몰라도, 그 의지와 정신은 후대의 후대를 거쳐 큰 변화를 만들어내, 결국은 산을 옮겨내지 않았습니까? 그 것은 인간의 힘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정성에 감동한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총장님이나 살아있는 동안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정성에 감동한 하늘이 기대하지 않는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것도 아주 이른 시기에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억원의 돈보다, 몇 채의 화려한 건물보다, 몇몇 화려한 학과가, 명문 십대사학이라는 허울보다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도전정신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우리를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정신의 원천이 될 것이며, 모두가 우러러 보는 명문사학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통합 과정과 교명 변경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에 대한 신뢰, 총장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돌려주세요. 오로지 총장님이 제시한 비전과 희망을 따라 지난 만 5년을 이 학교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사람으로서 총장님께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총장님의 품안에 있는 친자식과 같은 재학생들을 믿어주시고, 그 재학생들의 대표와 동지를 떠난 다큰 자식인 동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주소서. 학생들로 하여금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속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이 거친 곳을 가꾸어주소서. 만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총장님과 학교 당국의 승리가, 학생들의 패배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발 이 모든 것들을 재고하여, 민심(民心)과 천의(天意)를 아우르시길 간곡히 바라옵고 또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과 학교 당국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떠한 대답에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 금요일에 분기를 참지 못하고 제 격한 연설로 인해 총장님의 심기를 어지럽힌 부분에 대한 땀가 역시 달게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총장님.

이제 이 등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고 떠납니다. 한 사람의 경원인으로서 세상에서 멋진 비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송광영 의사의 직속 후배이자, 경원대 황금사다리 '마이콜'이자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06학번 김용균 拜上-

ps.> 그 문제의 격한 연설입니다.

<U><http://www.ustream.tv/recorded/14327384></U>

<U></U>

ps.2> 제 미니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입니다.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U><http://www.cyworld.com/cd7kim></U>, <U>cd7kim@nate.com</U>

자료 31. 학과 동문회 및 경원
인 통합반대 성명서

2012년 경원대학교와 가천의대의 통합으로 인한 학교명 변경에 대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동문회의 결의

1. 도시계획학과 동문회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대의 통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30년 전통의 학교명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통합논의에도 원칙적으로 결사 반대한다.
2. 경원대학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학과의 인지도는 경원이라는 이름으로 업계에 인식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명으로의 변경은 그동안 약30여년에 걸친 교수 및 동문들의 노력의 결과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도시계획학과의 인지도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가천”은 이길녀 총장의 호로서 학교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호를 굳이 교명으로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다.
4. 경원대학교 내에 가천컨벤션센터... 경원인은 분노한다.
5. 가천대학교나 가천경원대학교로 교명이 변경 된다면, 도시계획학과 동문회 뿐만 아니라 모든 졸업 동문들의 정체성은 총체적 문제에 부딪 칠 것이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동문회

교명에 대한 조경학과 총동문회 입장표명

안녕하십니까, 조경학과 총동문회 회장 86학번 최상돈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교인 경원대학교는 2012년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을 앞두고 교명변경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교 처장님들과 학생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교명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입장은 결국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 중책사항에 수렴만 할뿐 반영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4월18일 오전10시에 교무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무 위원회가 학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 회의를 통해 교명이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32명의 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투표결과는 압도적입니다.

경원대학교 1표, 경원가천대학교 3표, 가천경원대학교2표, 가천대학교 26표.

역시 학생, 동문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경원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된 교무위원회 회의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조경학과 총동문회에서는 교명 변경에 대해 반대서명운동과 ‘가천대’로의 교명변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원대학교 교명수호 조경학과 총동문회 회장 86학번 최상돈—

경원의 이름을 지우는 행태에 반대 한다

1. 10대 사학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돈과 일방적인 밀어붙임으로 안된다)
· 학생, 교수, 직원이 신명나야 한다.
학생에게 학습과 실력을 위하여라 [대학원 한학기 장학금 - 경원대:10만원 타대: 전액또는 250만원]
교수에게 질높은 강의와 연구를 위하여라 [시간강사 페이 - 경원대:3만1천원 서울소재대:7만원]
직원에게 처우와 안정을 위하여라
2. 건물 몇 개 짓는다고 10대 사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을 원합니다
3. 가천대 명칭만으론 취업에도 문제가 된다
가천대 이미지는 취업시장에 형성조차 안되었다.
왜? 의대 중심이라서.
4. 호암大, 아산大 들어보셨나요
교육기관은 개인의 사적 소유를 넘는 원대한 이상과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5. 최소 10년 이상을 경원대라는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하신 교수님 교직원님 한분도 교명 변경에 대해 이의나 반대의견이 없으시다니요
그렇게 경원에 대한 자부심 없이 근무하셨습니까?
가천명칭 반대해 주십시오!

행동지침 1. 항의합시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와 대학통폐합 담당자- 02-2100-6930

2. 전자민원신청

국민 신문고 : www.epeople.go.kr

경원大 교명 수호를 위한 경원人 연합